



자유한국당

국회의원 김선동

보도자료

배포일시	2018. 10. 19(금)	담당자	강태용 비서관 (010-4925-4509)
문 의	784-8971~3		박필동 보좌관

신보 10년 이상 장기이용기업 리스크 적색등

- 신보 장기이용기업 3,501개 중 신용도 악화·성장성 정체기업 2,192개(62.6%)
- '17년 대비 '18년 6월 우량·성장성향상기업 16% 감소, 신용도악화·성장성 정체기업 22% 증가

-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(서울 도봉구을, 정무위)은 신용보증기금에서 10년 이상 보증을 장기로 이용하는 기업이 3,501개 중 신용도 악화기업과 성장성 정체기업이 2,192개(62.6%)에 달하고 있고, 전년도 1,729개 대비 22.3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점검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.
-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계 기업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, 2013년 1,653개에서 2017년 1,878개로 14%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.
- 대기업 중 한계기업은 91개에서 71개로 감소하고 있었는데, 중소기업의 경우 152개에서 180개로 18%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- 실제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 10년 이상 보증을 이용하는 장기이용기업 3,501개 중 한계기업군에 속하는 신용도 악화기업과 성장성 정체기업이 62.6%에 달하고 있고, 전년도 1,729개 대비 22.3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 리스크 관리에 적색등이 켜졌다.

<표 1> 신용보증기금 장기이용기업 보증상태 현황

구분	2014년		2015년		2016년		2017년		2018년 6월	
	업체수	비율	업체수	비율	업체수	비율	업체수	비율	업체수	비율
우량기업	21	0.6%	21	0.6%	31	0.9%	28	0.8%	17	0.5%
성장성향상기업	1,440	43.1%	1,538	43.5%	1,524	45.4%	1,523	45.6%	1,292	36.9%
소계	1,461	43.7%	1,559	44.1%	1,555	46.3%	1,551	46.4%	1,309	37.4%
성장성정체기업	1,484	44.4%	1,580	44.7%	1,449	43.1%	1,426	42.7%	1,765	50.4%
신용도악화기업	396	11.9%	395	11.2%	355	10.6%	366	10.9%	427	12.2%
소계	1,880	56.3%	1,975	55.9%	1,804	53.7%	1,792	53.6%	2,192	62.6%
합계	3,341	100%	3,534	100%	3,359	100%	3,343	100%	3,501	100%

자료 : 신용보증기금(직접보증 잔액기준)

* 장기이용기업 : 보증이용기간이 10년(혁신형 중소기업은 12년) 초과하고 보증이용금액이 업종별 평균 보증이용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

** 성장성 정체기업 :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연체가능성이 높은 기업

*** 신용도 악화기업 : 최근 3개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(한계기업)

○ 우량기업의 경우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17개로 39.3% 하락, 성장성 향상기업은 15.2% 하락하였다.

-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악화기업이 각각 23.8%, 16.7% 상승하면서 장기이용 기업들의 리스크가 커진 것이다.

<표 2> 신용보증기금 장기이용기업 보증상태 현황

구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 6월
우량기업	21	21	31	28	17
전년대비	-	0.0%	47.6%	-9.7%	-39.3%
성장성 향상기업	1,440	1,538	1,524	1,523	1,292
전년대비	-	6.8%	-0.9%	-0.1%	-15.2%
성장성 정체기업	1,484	1,580	1,449	1,426	1,765
전년대비	-	6.5%	-8.3%	-1.6%	23.8%
신용도 악화기업	396	395	355	366	427
전년대비	-	-0.3%	-10.1%	3.1%	16.7%
합계	3,341	3,534	3,359	3,343	3,501
전년대비	-	5.8%	-5.0%	-0.5%	4.7%

자료 : 신용보증기금(직접보증 잔액기준)

* 장기이용기업 : 보증이용기간이 10년(혁신형 중소기업은 12년) 초과하고 보증이용금액이 업종별 평균 보증이용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

** 성장성 정체기업 :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연체가능성이 높은 기업

*** 신용도 악화기업 : 최근 3개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(한계기업)

- 장기이용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보에서 기업 컨설팅과 애로기업에 대한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, 장기이용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은 연평균 10건 내외이다.

<표 3> 신용보증기금 기업 컨설팅 추진 현황

구 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 8월
경영컨설팅	278건	422건	419건	228건
특화컨설팅	64건	343건	360건	204건
관계형컨설팅	1148건	1206건	1431건	979건

자료 : 신용보증기금

- * 경영컨설팅 : 중소기업마케팅, 재무회계 관련 사항 등 경영 전반의 애로사항 진단(장기이용기업 지원 연평균 10건 내외)
- ** 특화컨설팅 : 기업공개(IPO), M&A 등 특정 분야 솔루션 제공
- *** 관계형(신용관리) 컨설팅 : 신보 주요사업과 연계하여 기업 지원

- 기업진단을 통해 신규보증 추가지원, 보증 상환유예, 보증료 우대를 적용시키는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은 연평균 200건 정도 시행되나, 장기이용기업 중 문제발생이 높은 기업군 숫자가 2018년 기준으로 2,192개임을 감안하면 현재 진행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부족하다.

<표 4> 신용보증기금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현황

구 분	'15년	'16년	'17년	'18.9월	합계
선정업체수	213	230	223	진행 중	666
경영컨설팅 지원	3	4	5	2	14
신용관리(CRC)컨설팅 지원	9	10	21	10	50

자료 : 신용보증기금

- *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 :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보증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
- 기업진단 결과에 따라 신규보증 추가지원, 기존 보증의 상환 유예, 보증료 우대, 컨설팅 무료지원 등

- 김선동의원은 “구조조정이 필요한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사업재편으로 기업들의 출혈 경쟁을 막고,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”며, “신용보증기금 장기이용기업 중 성장이 정체되는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M&A 지원을 확대하고, 사업재편 기회를 주는 기활법 등을 활용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[참고 1] 외부감사 대상 법인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 현황

(단위 : 개, %)

구 분	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년
전체	총 기업 수	1,653	1,682	1,734	1,796	1,878
	한계기업 수	243	252	229	244	251
	비중	14.7	15.0	13.2	13.6	13.4
대기업	총 기업 수	941	950	963	976	993
	한계기업 수	91	91	76	79	71
	비중	9.7	9.6	7.9	8.1	7.2
중소기업	총 기업 수	712	732	771	820	885
	한계기업 수	152	161	153	165	180
	비중	21.3	22.0	19.8	20.1	20.3

자료 : 금융감독원(kis-value)

- 주: 1) 각 연도별 상장기업 중 해당연도 기준 최근 3개년의 재무제표 확인 가능 기업 대상
 예) '13년 기준 1,653개 기업은 '13년말 상장기업('13년 이전 상장폐지된 기업은 제외) 중 '11, '12, '13년 재무제표 확인 가능한 기업
 2)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(영업이익/금융비용) 1배미만으로 정의
 3) 중소기업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(§2)상 중소기업 기준에 근거하여 구분(kis-value 자료 인용)
 4) 표준산업분류코드 중 금융 및 보험업(대분류 기준)은 제외